

도내 곳곳 자치도 출범 축하 릴레이

도·금융·유통업계 등서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 전북자치도 주인공인 도민 대상 붙임 조성 기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다채롭고 풍성한 이벤트를 꾸준히 마련해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128년 만에 맞이하는 특별한 변화를 자축하고 있다.

먼저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의의와 기대효과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근간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알기 쉬운 전북특별자치도 웹툰'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북특별자치도 웹툰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SNS와 도내 공

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책자로도 발간돼 도내 학교와 시군 등에 총 1만 부가 배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SNS에서는 출범 축하 기념 숏폼 챌린지가 시작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로고송에 맞춘 안무 숏폼을 게시하면 특별자치도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백화점 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기관도 특별 이벤트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했다. 전북우정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우표는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의 풍경을 담은 14장의 우표로 구성됐다. 전북우정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향한 시군 협력과 화합의 의지를 우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우표는 사전 접수 후 제작되며 출범일인 18일부터 전주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는 하이트진로(주)와 협업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슬로건이 담긴 '참이슬' 소주 30만 병을 수도관에 납품하는 등 대외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알리는 데에도 노력했다.

도내 금융기관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한 특별예·적금을 출시해 도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은행은 출범 50일을 앞두고 예금금리 연 3.85%인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선보였다. 1인 100만원 이상 정기예금 특화상품으로 오는 3월 29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평균잔액의 0.1%를 전북특별자치도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하며, 매월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추첨 행사도 이어간다.

지역항도은행인 전북은행도 출범 30일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

금'을 출시했다.

출범 원년인 2024년을 기념해 2024구와 한정으로 출시했으며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출시 3일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대형마트와 가전업체 등 도내 유통업계도 자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할인행사를 마련하고 붙임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는 각사의 특색이 반영된 출범기념 할인행사를 전 매장에서 1월 한 달간 진행한다. 가전업체 대표주자인 삼성스토어·LG베스트샵·전자랜드도 기념할인과 사은품 증정 등을 진행하며, 일부 품목은 최대 25%까지 할인한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도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테스트베드를 꿈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54회 전북기능경기대회 접수

26일까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

도내 숙련 기술인의 축제인 제54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전북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참가원서 접수는 26일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r>)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다.

전북기능경기대회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25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

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입상자는 입상일로부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사사 시험 면제 특전도 주어진다.

한편,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은 2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나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063-210-9205)로 문의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가족 및 다문화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정책·사업 추진 도움 목적

전북도가 15일 14개 시군 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가족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가족 및 다문화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일선 현장에서 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에게 2024년 가족 및 다문화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내용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전북도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대비 32.1억원(16.4%)이 증액된 228.2억원(국비 92.5, 도비 45.9, 시군비 89.8)의 사업비로 23개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급년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전부터 초등학교 자녀 전제로 기초학습 지원(10개소→17개소)과 정서·진로상담(10개소→12개소)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직접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규 추진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15일 14개 시군 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가족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가족 및 다문화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오던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해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온가족보듬사업)을 추진해 가족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지원한다.

1인가구 현관문 앞 CCTV 및 안심장비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430가구→

700가구)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위한 기업 컨설팅, 근로혁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 사업 또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도 대표사업인 글로벌마을화당에서 한국어 마을화당과 찾아가는 가족교육,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입국 결혼이민

자에게 입국 초기부터 국적취득까지 안정적 가족생활 및 국적취득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적취득 멘토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 결혼이민자에게 고향나들이 지원, 검정고시 및 대학학비 지원과 직업훈련교육,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전문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청년 마음건강 돌봄 강화 추진

전북도, 12개 대학 및 청년유관기관과 MOU체결 위험군 발굴

전북도가 취업난·경제적 여건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기 위한 전라북도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작년 4월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그룹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

전라북도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 20명을 등록하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집중 사례관리를 했고, 센터 미등록 청년 649명에게도 전화·방문을 통한 일반상담 및 정신과전문의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대인관계 및 사회훈련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였고, TV·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250여회의 홍보 활동을 통

해 정신건강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에 힘써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의 노력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95.1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금년에 군산과 익산에 비상근로로 운영하는 분소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지역별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혼자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돕기 위해 전북대 등 도내 12개 대학교 및 청년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완료했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극심한 취업난과 경제적 지립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은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숨기지 말고 부담없이 다가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